

세계기도정보

- [인도] 개종금지법 강화...기독교 신앙 위축
- [대만] 태풍 라가사, 대만 강타...홍수로 14명 사망·124명 실종
- [네덜란드] 하원, '전환치료' 금지법안 통과...복음주의 연맹 "목회 자유 위협될 수 있어"
- [티모르레스테] 대학생 시위에 놀란 의회, 국회의원 평생 연금 폐지
- [독일] 성인 절반, "소셜미디어 없는 세상 원한다"
- [세인트루시아] 경찰, 군복 서비스 출범...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치안 사명
- [세인트루시아] 경찰, 군복 서비스 출범...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치안 사명
- [브라질]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새로운 선교 모델로 주목
- [캐나다] 장애 아동 안락사 확대 논의에 비판 확산
- [나이지리아] 마약을 남용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과 치료 시급해
- [영국] 상원, 조력자살법 첫 공식 토론 예정...생명운동가들 적극 대응



2025. 9

멕시코에서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뿌려졌던 씨앗.

9월 16일 화요일, 오늘은 치아파스 팔랑케에 하늘색 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로 떠났다. 내년 1월 부산 행복한 교회팀이 와서 사역할 곳을 찾고자 방문한 곳이다. 이곳은 출 언어가 아닌 츠첼어를 사용하는 사빠 띠스타(반정부 운동을 했던 원주민 사람들)가 사는 폐쇄적인 마을이다.

이곳도 인터넷이나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빠고 형제의 도움으로 도착한 이곳에는 이미 현지 목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 문화에 따라 이들을 찾아온 손님인 나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한다. 나는 담임목사의 눈에서 교사 양육의 필요성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나와 이야기를 통해 확신을 가진 목사는 담당 직분자 네명을 불러 모았다. 담임목사는 그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관해 이야기하며 교사 양육의 필요성을 현지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 폐쇄적인 이곳 리더들은 담임목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얼굴의 변화가 없다.

비록 나는 이들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과 얼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굳어 있는 얼굴을 보다가 내가 이야기했다. 자신들끼리 있을 때는 현지 방언을 사용했지만 다행히 이들은 스페인어를 잘 사용한다. 나는 팬데믹 기간 출 노회에서 전체 강의를 인도한 사람임을 이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지금 은퇴를 앞두고 나의 꿈이 무엇이며, 왜 다음 세대 교육이 지금 이곳에 필요한지 그래서 왜 교사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 명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이들에게 물었다: “혹시 팬데믹 기간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쓰인 마스크가 이곳에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대답한다: “예 그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마스크를 만들고 또 보낸 사람이 바로 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던 모두가 놀라며 나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한다. 그리고 나에게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우리는 1월에 이곳에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다.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9월 9일 화요일, 이른 새벽 첫 번째 방문 지역인 메리다 지역을 이틀에 걸쳐 차를 몰고 갔다. 첫날 12시간, 둘째 날 15시간의 운전... 이제는 예전처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분을 영접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다. 미겔 목사의 교회와 호엘 목사의 교회에서 3일에 걸쳐 킹 오브 킹즈 영화를 상영했다. 마치 천국의 축제처럼 사람도 그리고 음식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도 풍성했다.

나도 영화를 처음 이들과 함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현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준비한 영화였지만, 사실은 이 영화를 상영하는 내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천석아, 너는 믿음이 있니?” 죄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믿음, 내가 선포할 때 눈먼 자 그리고 중풍 병자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믿음이 있는지 그는 끊임없이 나에게 물었다. 현지인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를 보면서 나는 부끄러움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그 누군가가 아닌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한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천석아,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지 않으렴?”

9월22일 월요일, 새벽 3시를 조금 지나 출발해서 나는 아내랑 7시간을 운전해 치아파스 팔랑케에 도착했다. 이날 멕시코는 독립기념일 휴일이다. 낮 12시부터 오늘은 두 군데에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어제 늦게까지 사역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힘을 주신다. 치아파스는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전화도 텔레비전도 먹통이다. 그런 이곳 사람들에게 100인치 화면으로 보이는 영상은 감동이다.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다. 감동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9월 19일 금요일, 오늘은 이번 방문 기간에 제일 위험한 곳을 향해 떠나는 날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진다. 어제부터 쏟아진 폭우는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러나 난 사람들과 이미 약속을 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지역이라 취소할 방법도 없다. 트럭을 수소문해 약속한 곳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야외에 마련된 천막 아래에 스크린과 스피커 그리고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급하게 밥을 먹었다. 그 사이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영화가 상영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폭우가 쏟아진다. 나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나 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다. 스피커 소리보다 큰 천둥소리, 영화 상영을 마치고, 폭우와 천둥소리를 대항해 목이 찢어지라고 외쳤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세요!” 비로 인한 홍수에 대항해 하나님은 은혜의 홍수를 내려주셨다.

9월 20일 토요일, 오늘은 치아파스 사역 기간 내내 나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고 또 길 안내와 운전을 담당 해준 빠고 형제에게 나는 영접 초청을 해보라고 했다. 그는 미겔 목사의 제자지만 한주간 나와 함께 다니며, 그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지 지켜보았다. 영화가 끝나가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다. 예배당 밖에서 영접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 기도 중이었다. 제자의 제자,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한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주셨다.

9월 기도제목:

1. 1월 전도 집회에 앞서 치아파스 지역이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은혜의 땅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2. 10월부터 시작될 코스타리카 하비 목사의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3.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나를 대신해 쿠바를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목사의 출입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교회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길.